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치짐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세계 선교 주일 선교 헌금 작성

본 교회는 지난 89년까지 세계 12개국에 모두 22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 1:8)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충성되어 감당해 왔다.

본 교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오늘(1월 21일)을 세계선교 주일로 선포하고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뜨거운 헌신의 마음과 정성이

교역자·장로 연합기도회

금년 들어 첫번째 교역자, 장로 연합기도회가 1월 17일 오전 10시 충현기도원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명식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기도하는 자의 현주소"라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현주소는 회개, 순종, 충성의 자리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계속된 기도회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문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충현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교역자, 장로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충현의 성도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



루는 천국시민이 되기 위하여,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기도했다. 이 기도회는 2개월에 한 번씩 실시될 예정인데 온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

뉴욕충현교회와 자매결연

본 교회는 오늘(1월 21일) 저녁 예배시에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뉴욕충현교회와 자매 결연식을 갖는다.

뉴욕충현교회는 현재 정재현 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교회를 대표해서 최석주 장로가 자매결연패를 전달 받는다. 앞으로 본 교회는 뉴욕충현교회와 선교사 훈련, 목회자 연수 및 교육, 강단 교류, 계절학교 학생 교류, 제직의 상호 인정과 봉사, 기타 중요한 정보 교환 등에 있어서 협력하게 된다.

1월 12일, 13일 직원 수련회 가져

본 교회 직원들은 지난 1월 12일과 13일 이들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열었다.

45명이 참석한 이 수련회의 개회 예배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될 것"을 부탁했다.

또한 직원들은 하대선 장로의 "직장인의 근무 자세와 요령" 정소영 집사의 "직장인의 적응성"에 대한 강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분임토의, 과별 업무지침에 대한 브리핑, 윤용규 목사가 인도하는 기도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헌신과 봉사로 섬겨나갈 것을 새롭게 다짐했다.

안석렬 선교사 임지 변경기로

지난 1987년 2월 22일 남미 파라과이로 파송되어 사역을 해 오던 안석렬 선교사가 남미에 위치한 수리남으로 임지를 변경하게 된다. 안석렬 선교사는 김재창 목사와 파라과이에서 협력 선교를 계속 하여 왔으나 남미에 선교지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본 교회는 변경을 허락하였다.

수리남은 인구 40만 명의 브라질 위쪽에 위치한 열대우림의 기후를 가진 나라이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수리남에 한인 교회를 선교지기로 해서 꾸준한 선교 사역을 전개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 《신앙세계》 본교회 특집기사 실어

월간 기독교계 잡지인 《신앙세계》는 90년도 신년호에서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충현교회"라는 제목의 특집을 게재하여 본 교회를 소개했다. 기사에서 "충현교회는 복음주의 신앙을 기초로 교육, 선교, 구제의 세 기능을 세우고 회개와 갱신을 위해 흥해작전, 시온성대행진 등 영적 각성운동을 전개했으며, 역사 속에서 거듭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충현세계선교원, 사랑의 집, 복지마을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목회자 단신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②

H.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사님은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부탁하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던 중,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나도 몰래 뜨거운 감사가 솟구쳐올라 지면을 통해 이 글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벌써 해가 두번씩이나 바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그때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큰슬픔 중에 계셨지요. 그토록 사랑하던 가족과 사별을 하시고 남은 것이라고는 철 없는 어린 자녀들과 집 한칸 마련하겠다고 주택적금을 든 저금통장 뿐이었습니다. 그 피눈물이 묻은 통장을 과부의 염전 두 닢처럼 주님 앞에 바치시던 날, 우리 교회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세계적인 대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집사님, 오늘은 어디서 이 추위에 지내는지 그 날 이후 소식은 못들었지만 물질로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보화는 물론 이 세상에서도 넘치는 은총을 이미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억울하게 하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기를 비어 바치는 자에게만 배로 갚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 자자손손 만대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충현교회와 함께 누리시옵소서.

1990년 1월 16일
이종윤 목사 드림

위임목사 동정 건축위원회 회의 주관 중등부·고등부 수련회에서 특강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 1월 16일 오후 7시에 충현기도원에서 개최중인 고등부 수련회에서 참석한 학생들에게 "비전 있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한 이 목사는 18일 낮 12시에 소집된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원들과

함께 사랑의 집, 충현세계선교원 복지마을 건립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이 목사는 오는 23일(화)에 중등부 수련회에서 특강을 하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고등부 동기 계절학교 은혜 중에 마쳐



중등부 동기 계절학교 1월22일부터 24일까지

중학생들의 신앙과 인격 훈련을 위한 동기 수련회가 장화종 목사(두레교회 시무)를 강사로 초청하여 내일(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갈릴리 홀에서 개최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창39:3)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 수련회는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 자제력을 잃은 채, 방황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세속의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확립시키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이종윤 위임목사와 김해규 목사의 특강도 있을 예정인데 중등부는 학부모들의 기도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고등부는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약 35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동기계절학교를 가졌다.

송태근 목사를 강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엡 6:13)는 주제로 진행된 이 계절학교는 이종윤 위임목사와 조성병 목사(그루터기선교회)의 특강, 집중적인 신앙 훈련, 애찬식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인생에 있어 가장 귀중한 고교 시절에 믿음의 성장을 갖게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교회 안내	
주일예배	I부: 오전 7시 II부: 오전 9시 III부: 오전 11시 IV부: 오후 1시 English Service: 오전 9시 찬양예배: 오후 7시 ※ III부에는 수화,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 통역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철야기도회	오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1~6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1~2부, 청년3~4부, 소망부, 영어부, 직장전도부, 새가족부, 새가족부, 사랑부, 예배다부, 탁아부, 살롱경로대학
방송설교	기독교방송(837KHz) 주일 오후 7시
상 담	신앙 화요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55-6684)
	일반 주일 오후 1시~오후 5시
	수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66-5122)
의료상담	주일 오후 12시 30분~오후 3시
세무	셋째 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성경 강해

올바른 판단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요7:17-24)

이 중 윤 목사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일과 그른 일,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 앉을 자리와 설 자리, 갈 곳과 떠날 곳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내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아 인생을 망쳤다는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과오 중 가장 큰 과오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무시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도 그릇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람은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요7:19).

폐활량이 큰 사람은 오랜 시간 물 속에서 건널 수 있으나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뿐 부산 앞바다를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염을 잘 치거나 못치거나 못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력 구원은 처음부터 기대해서도 안되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1. 판단의 기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수 개월 동안 사역하시다가 다시 유대 지방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문세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 전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치다시피하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갈릴리 지방으로 파신을 하시게 되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다시 유대 지방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1년 전의 일을 군중들은 잊어버렸으나 종교 지도자들

리세인들, 시기관들은 잊지 않고 “1년 전에 안식일을 범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도망갔던 그가 다시 왔다.”고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요7:19)라고 하시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요7:24)라는 훈계를 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만저질 수 있는 것이나 가시적인 것을 통해 판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옷이 날개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청보에 무엇을 싸놓은 것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단으로 겹을 싸 놓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부패한 것은 악취가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을 잘 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 예배당 건축공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남지역에 건물

있다면 20층, 30층의 고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천불이었을 때의 생각과 5천불이 넘는 지금과는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갈등은 판단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들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게 되면 범죄한 것이 되어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며 위선자라고 사정없이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속에는 부패한 시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무덤일 뿐입니다.

2. 율법을 좇는 자

첫째, 율법을 좇는 자는 제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좇는 자는 율법으로 판단을 받게 되므로 제주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삶의 표준, 믿음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율법으로 정죄하여 죄인으로

몰아쳤습니다. 율법으로는 살길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뺏아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제 6 계명과 제 7 계명을 범한 것이 되므로 가차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저주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갈3:10)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둘째, 율법을 좇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안식일을 범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들을 낳은 지 제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함으로써 스스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3. 율법의 역할

첫째,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비추어 알게 합니다. 그런데 거울은 씻어 주지는 못하지만 더러워진 것을 씻도록 해 줍니다.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할 뿐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율법만 가지고 살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표상으로 보여졌고 희생제사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 다.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문세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유대 민족이 아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교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율법은 희생 제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대인에게 일년 중 하루를 속죄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때는 감격에 넘쳐 춤을 추며 기쁨으로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속죄일 하루만은 가슴을 치며 회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죄일에는 희생제사를 두 번 드렸습니다.

한 번은 염소 한 마리에 죄인의 손을 얹고 제사장이 안수 기도를 한 후 광야로 방면합니다(레10:21,22). 또 한 번은 성전에서 다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법궤와 만나와 아론의 락단 지팡이와 깨어진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 있는 지성소에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이 속죄일에 행해집니다. 깨어진 돌판은 인간이 율법을 깨뜨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 지성소에서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을 범한 인간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화해하게 될 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을 위하여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 후 출애굽을 할 때는 한 가정을 위하여 양 한마리

만 죽으면 되었고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양 한마리를 죽여 그 피를 일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마다 아니고 한 가정마다 아니고 한 민족마다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격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율법에 끌려서 악기로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90년도 절기에배 및 사업계획

절기 예배 일정

기 간	명 칭	내 용	주 관
1. 1 (월) 4. 15 (주일) 7. 1 (주일) 9. 2 (주일) 11. 18 (주일) 12. 25 (화)	절기에배	신년예배 부활절예배 맥추감사절예배 교회설립37주년 기념 감사예배 추수감사절예배 성탄절예배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매월 셋째 주 지난 수요일	세례식	1. 학습·세례·양교·개종 문당 및 교육 : 매월 셋째 주 지난 월·화요일 2. 세례식 : ① 매월 셋째 주 지난 수요일 1부, 2부 예배시 ② 목표 : 세례 1,000명 학습 1,500명	예배위원회 교구위원회
절기에배시	성찬식	1. 7 (주일) 신년 4. 15 (주일) 부활절 7. 1 (주일) 맥추감사절 11. 18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위원회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기 간	명 칭	내 용	주 관
1. 7 (주일)	공동의회	1. 일시 : 1990. 1. 7. 4 부예배후 2. 장소 : 본당 세례교의전원 3. 의제 : 1. 1989년도 일반회 특별회계 결산의견 2. 1990년도 일반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견	당 회
1월중	교회학교동기수영회	과 교회학교동기수영회 개최	교육위원회
2. 12~ 4. 16	목회자세미나 제4학기	대상 : 전국교역자(약 1,500명)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 주교님 위원회 시간별로 교계 유수한 교역자 주제 : 복음전도와 사명복사	한국교회 성경연구원
3. 4 (주일)	청기제직회	1. 청기제직회 년 4 회 이상 주일찬양예배후 2. 회원 : 서리집사 이상 전원	제 직 회
3. 5 (월)	특별세미나	1. 주제 : 교회와 국가 2. 대상 : 교역자 및 성도 3. 강사 : 현법학자, 법관 및 신학자	당 회
3월중	모범구역발표회	1. 모범구역 시제 발표	교구위원회
4. 7 (토)	교구찬양 경연대회	1. 대상 : 합창 - 14개교구 각 100명 이상 중창 - 1 교구당 1 조 가족 단위 및 전도회 2. 장소 : 본당	교구위원회
4. 22 (주일)	집사인수 및 권사 취임	제 7 대 안수집사 20명 제 34 대 권사 40명	당 회
3~5월 매주 목·금	제자훈련	1. 일시 : 매주 목·금 1박 2일 2. 장소 : 기도원 3. 대상 : 제자전원 4. 권장 : 교사, 찬양대원 주제 : 목회자와 성경연구	성경연구원 제자훈련원
5. 7~ 7. 9 (화) 7. 8 (화) ~29 (화)	목회자세미나 제5학기 부부교양대학 개강	1. 제 3 회 총련부부교양대학 개강 2. 매주 화요일 4 회 오후 7시~9시 3. 장소 : 본당 4. 500명 등록예정	한국교회 성경연구원 부부교양대학
5월중	하계수련회	1. 교구별] 하계하계수련회 찬양대원 2. 교회 중심 양복 3 시간 거리 이내 장소	각 소속 위원회
6. 3 (주일)	청기제직회	주일찬양예배 후	당 회
6. 6 (수) ~20 (수) (15일간)	특별새벽기도회	1. 영적 각성과 사명의 집 거리를 위한 전교의 새벽기도회 운동 2. 1 일 5 천명 이상 참석 기도 목표 3. 별도 참모 조직 운영	당 회
6. 20 (수)	사랑의 집 기공식	사랑의 집 기공예배 1. 장소 : 건축 예정지 2. 집례 : 위임목사	건축위원회
6. 24 (주일)	건축현금	사랑의 집 건축을 위한 정성의 건축 현금 직접	재정위원회
7월~8월	교회 학교 하계수련회	제 1, 2, 3 교육위원회 별도 계획에 의한 실시	교육위원회
7월~8월	하계전도대파송	1. 민족복음화를 위한 전도 1. 자교회 및 지교회 보조 및 전도 2. 하계전도대 파송전도 10개지역 교역자 인솔하여 대면파송 2. 교회부흥을 위한 전도 1. 매주 98개 남·여전도회별로 전도운동 2. 학원 및 특수 전도 활동	전도위원회

7. 27~8. 31	선교사 초청	3. 70인전도대 교육 및 전도 4. 태신자 5,000명 전도 목표완성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초청 1. 선교지 보고 2. 아시아 선교대회참석 3. 선교 전략 연구 검토	세계선교 위원회
8. 23 (목)~ 9. 1 (토) (10일간)	아시아 선교대회를위한 새벽기도회	1. 아시아 선교대회가 하나뿐인 영광되도록 특별 새벽기도회 운동 전개 2. 1 일 5,000명 이상 참석 목표	당 회
8. 26 (주일)	청기제직회	주일찬양예배 후	당 회
8. 27 (월)~ 31 (토) (5일간)	아 시 아 선교대회	1. 아시아에서 파송한 세계 각지 선교사 전원 2. 아시아에 파송되어 사역하는 선교사 전원 3. 참석 예상인원 : 약 2,000명 4. 기간 중 새벽기도회와 위임목사 이중운	세 계 선 교 위 원 회
9. 2 (주일)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	1. 1990. 9. 2 저녁찬양예배 (메시야) 연합찬양대 지휘 : 최시원 감독 2. 교회학교 ① 성경 암송 ② 음반 ③ 성극 발표	찬양위원회 교육위원회
9. 17~ 11. 26	목회자세미나 제6학기	주제 : 목회행정과 관리	한국교회 성경연구원
9. 21 (금) 9. 22 (토) 9월~11월	장애자 돕기 바 자 회 서리집사 후보교육	1. 각 교구별로 점도 운영 2. 목표 : 1 억원 1. 성경연구회 계획에 따라 교육 교육과정 중 1/2은 전도활동으로 결실을 맺게 함 2. 11월 중순 기도원에서 제자훈련으로 종강 3. 12. 2 (주일) 찬양예배 특별찬양 담당	성경연구회 당 회
10. 6 (토)	시진 및 크리스마스카드 품평회 작 품 전시회	1. 개인사 진전 (작품내용 : 교회당전경, 교육, 선교, 구제) 2. 크리스마스카드 창작품 3. 참가자격 : 전교인 4. 시상 5. 작품전시	총 령 지 출 판 국
10. 7~ 15	제 1 기 목회자 세미나 수료	수료대상 : 6 학기 전체 등록한 교역자로서 출석 40주이상	당 회
12. 2 (주일)	직분자 양명	1. 서리집사 및 교구 일꾼 양명 일시 : 12. 2 (1부~4부) 예배시 대상 : 서리집사, 관장, 교구일꾼 전원 2. 교사 및 찬양대원 양명 일시 : 12. 9 대상 : 찬양대원 (1부~4부예배) 교사 (4부예배시)	
12. 9 (주일)		3. 호신나·실로암찬양대원 양명 일시 : 12. 12 수요일 1, 2부 예배시	
12월중	총 회	1. 교구총회 일시 : 12. 14 (금) 오후 7시 장소 : 본당 대상 : 교구일꾼전원 2. 교사총회 일시 : 12. 24~29 장소 : 각부 별도 대상 : 전교사 3. 찬양대총회 일시 : 12. 17~23 장소 : 각 찬양대 별도 대상 : 전 찬양대원 4. 남녀전도회 총회 일시 : 12. 16 (주일) 4부예배 후 장소 : 본당 대상 : 남녀전도회원 전원 5. 스터반회 총회 일시 : 12. 5 (수) 2부예배 후 장소 : 국제회의실 대상 : 안수집사 전원 6. 권사회 총회 일시 : 12. 5 (수) 1부예배 후 장소 : 갈릴리움 대상 : 시무권사 전원 7. 교회학교 면려회 일시 : 12. 17~23 장소 : 각 면려회실 대상 : 각부별 회원 전원	교구위원회 교육위원회 찬양위원회 전도위원회 스터반회 권 사 회 면 려 회
12. 30 (주일) 매주 일 (52회)	청기제직회 주간총회	주일찬양예배 후 위임목사 설교 및 신앙강론, 중현다락방, 교회소식 매주발간 배포	당 회 총 령 지 출 판 국
3. 6, 9, 12월	계간총회	년 4 회발간 신앙교양지	총 령 지 출 판 국
매월 (12회)	총현의맛나	가정예배안내지 : 매월발간배포 (성경, 설교, 찬송, 기도제목)	총 령 지 출 판 부
매주 출제	성경통신강좌	1. 대상 : 전교인 2. 성경 : 신구약 전장 1년에 통독케함 3. 출제 : 주보발행일에 출제하고 답안지를 교구를 통해 제출함	성경연구원 교구위원회
매월 1 회 (4부예배후)	구역일꾼교육	1. 강사 : 위임목사 2. 대상 : 교구장, 지역장, 부지역장, 협력구역장, 구역장, 권장전원 3. 장소 : 본당 (교구별로 장석배정)	교구위원회

세기영

교회의 지체와 역할

윤 성 철 장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사형수가 처벌되던 형
들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구원의 도구
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십자가는 죽음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성도는 그 지체이다. 온 몸
을 이루는 지체의 모습은 각양이나 그 위치에서 이탈되
면 이미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지체로서의 우리의 모습과 역할을 생각해 본
다.

오늘날 사회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졌지만 그 내부 조
직은 분화되고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큰 모습을 이룰수록 그 세부 조직
의 역할은 중요하며 그 위치와 기능은 확적의 최고로 유
격되어야 하며 다른 조직과도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그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는 다룰 수가 없으며
그 핏줄은 끊어져서도 안된다. 그것은 바로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피가 흐르지 않는 삶이 썩어들어가고 파다하
게 흐르면 핏줄에 터져 버린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각 지
체에 그들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피가 적절하게 흐를때
바로 생명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교육과 선교, 구제의 세 기둥을 세운 우리 교회는 90
년대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그 모
습과 역할의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교회의 각 기관
은 새로운 조직과 얼굴로 개편되어 이제 자신들에게 맡
겨진 역할을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감당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이 독립된 형태를 갖추었다교회에서 절
코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으며 교회라는 조직에서 이
탈해서는 아니 된다.

교회는 자체인 각 기관이 교회가 보살피기 어려운 부
분, 손길이 미처 닿기 어려운 일에 대해 지체들이 헌신
의 도구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가 아닌 나, 교
회가 아닌 우리를 대세우는 일이다. 기독교인의 가장 아
름다운 꽃이었던 사랑과 봉사, 헌신의 꽃이 점차 향기를
잃어가고, 만져 된 자들이 애통해 하는 자들, 복마련 자
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예수)를 버리고 아버지(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도구였다. 예수님께서 십자
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 만민 구원의 대 역사를 완성하
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살도 우리에
게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
원하시기 위한 화생양이셨음을 잊어서는 아니되며 그 십
자가 밑에 이제는 나의 희생과 헌신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망각한 기관은 소대나
는 병마리에 불과할 것이고 교회의 버려진 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산을 무시하는 일꾼은 양몰이는 될지언정 양무
례의 몸은 되자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렵고 겁
혀한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인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

다음호 새기둥은 이태규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90년도 제직회 부서별위원

선교헌금: 송두섭, 채수경, 이영만, 마숙전, 최명환, 최지윤, 월정헌금: 하재명, 김용섭, 권장철, 특별헌금: 진홍용, 마도원, 집계: 백중현, 김춘희, 임정자, 정순애, 오희명, 장기옥, 임순자시설관리부 부장: 오정수, 차장: 김태영, 위원: 주원홍, 김점석, 한경선, 박찬섭, 이태석, 김종연, 마숙전, 고종복, 동산관리부 부장: 마성락, 차장: 박인건, 위원: 오인근, 최만수, 채수경, 기도원관리부 부장: 박치민, 차장: 정정주, 위원: 고병국, 김인관, 이하영, 최명환, 환경미화부 부장: 김영길, 차장: 강봉수, 박옥석, 위원: 백영희, 김석순, 이영희, 배종숙, 유호순, 김경래, 도서관 관장: 김원선, 서기: 김경희, 위원: 김영구, 송태근, 김해규, 김은태, 김장수, 마일수, 조선근,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원감: 김은호, 지도: 이조웅, 부지도: 김성식, 한용관, 교학담당: 김재명, 서무담당: 김태영, 회계: 김재명, 위원: 김여순, 박인건, 오인근, 김태연, 하명호, 차광만, 차기풍, 윤병조, 이민근, 김세홍, 총헌제자훈련원 원감: 오정현, 지도: 이조웅, 부지도: 김성식, 한용관, 교무처: 김재명, 김태영, 이승철, 김정연, 행정지원: 이종국, 정정주, 김차철, 봉사: 김여순, 오인근, 박인건, 강봉수, 박찬섭, 김춘권, 오동환, 김영수, 김태영, 하명호, 김태연, 김춘지, 이의복, 이봉춘, 임옥환, 김분식, 시설반: 고병욱 (계속)

간증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김 해 순 성도



고향이 평양인 저는 생후 3개월이 되는 해에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여러 지방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국민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다니기조차 힘들었고 동생 넷을 데리고 집에서 노는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장사를 하셨으나 생활이 여의치 못해 끼니를 거르는 때가 많았습니다. 소녀 시절에는 여군이 되는 꿈을 꾸기도 했으나 대학교 때는 연극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저의 삶이 바뀐 것은 74년에 앓기 시작한 심장판막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수술이 어려웠고 수술을 한다면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비용도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위해 주소를 확인하려고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예수 믿을 병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필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안수 기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던 중에 “바로 나아, 바로 너!”라고 하시면서 나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빛이 나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뵈옵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마나 피를 토했는지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병 고침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너의 죄로 인해 내가 죽었노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 왔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굶고, 잠 정도도 찾아 다니며 하나님과 소모전을 했던 제가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도하던 중 칼빈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란 제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학교생활을 계속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청송감호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 위치한 청송감호소는 주로 중범죄수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심령은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왔고 바로 여기가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매월 재소자들을 위한 생일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백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

리고 생일케익을 자르며 축하하고 선물도 나누어 주면서 감격해 하는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하여 입원한 지 일주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6개월밖에는 더 살지 못할 것이라며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내게는 심장판막 중에서 하나만이 정상이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과 숨이 차는 고통뿐 아니라 관절염까지 생겨서 집에서 홀로 지내며 투병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일한 기쁨은 청송감호소에 가서 드리는 생일감사 예배였습니다. 또한 나의 마음을 가장 감격스럽게 했던 것은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다리가 부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형편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었고 강단에서 걸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재소자들도 나의 정성을 보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돌보지 않는 자자들을 위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생일감사예배를 함께 드려 주는 저를 보면서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회생을 아끼지 않는가 하면서 감격해 하였습니다.

재소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김해순 성도님을 위하여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해진 저를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이었던 저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던 저는 주위의 여러 도움으로 영세민 카드를 발급받아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결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진정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걸을 수 없을 때 계단을 오르내리며 저를 업고 다니시던 교도관을, 전신마비가 되어 꼼짝도 하지 못하던 저를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시며 항상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 특히 청송감호소의 재소자 형제들의 애절한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청송감호소뿐 아니라, 김천 소년교도소에도 선교의 문이 열려서 일년 전부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되어가는 소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선교 사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함께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에스더11지회에서는 계속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더욱이 출소한 형제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 어느 권사님께서 땅을 빌려 주셔서 그곳에 사랑의 집을 짓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 바울과 같이 저의 약함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 하나님이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마28:19; 고후13:13).

설 명

하나님은 영이시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절대적 속성(비공유적 속성)과 인간의 성품과 어느 정도 유사점을 띤 보편적 속성(공유적 속성)을 갖고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삼위를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로서는 가히 측량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알게 된다.

질 문

1.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요4:24; 딤후6:16)?
2.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의 뜻은 무엇입니까(출3:14)?
3.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봅시다.
 - 1) 시90:2, 시102:12
 - 2) 말3:6; 약1:17
 - 3) 욥11:7~9
4.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고전8:4~6)?
5. 당신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4 과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신6:4~9

요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찬송: 23, 25

제 4 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출3:14, 출34:6, 7; 욥11:7~9; 시90:2, 시137:5; 요4:24; 약1:17; 제4:8, 제15:4).

제 5 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답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신6:4; 램10:10; 고전8:4).

제 6 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位)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